

# 선풍기도 없는 공사장 심터 ‘숨 톱톱’...“쉬어도 쉬는 게 아냐”

## ■ 르포 ■ 폭염 속 건설현장 휴게시설 가보니

연일 낮 최고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의 휴게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 소위 1군 건설 현장은 노동자 휴게시설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3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건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만난 한 건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는 물 많이 마시고 그늘막에서 쉬엄 쉬엄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결국 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꿈 같은 소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예방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비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상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고 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 냉방장치를 추가설치해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생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낮 최고체감온도가 35.5도까지 치솟은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철거현장에는 정부의

광주 현장 옆 천막 휴게시설 설치 선풍기 있어도 더운 바람 ‘땀 줄줄’ 정부 지침? 현장선 “꿈 같은 소리” 대기업 현장은 에어컨 등 갖춰 소규모 건설 현장엔 여전히 열악

가이드를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 건설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소’라고 적힌 종이 붙은 접이식 텐트 천막 한 동만 설치됐을 뿐이다. 공사현장을 가린 철제 가림판 때문에 바람도 잘 들지 않은 곳에 선풍기 같은 냉방장치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시원한 음료도 햇볕 아래 노출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들어있는 생수가 전부였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소에서 쉬는 것보다 현장 뒤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더 시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 있는 북구 중흥동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한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건물의 1층에 근로자 휴게소라는 현수막이 걸린 휴게소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휴게소 주변에는 벽돌 등 공사 자재가 쌓여있는 탓에 바람 한점 통하지 않았다.

휴게소 내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를 켜면 오히려 습도가 높은 더운 바람이 가득 할 뿐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열병에 가득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기 바빴다. 수건을 짜자 수도물을 튼 것처럼 땀이 쏟아졌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한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자 휴게실터로 마련된 천막 아래서 쉬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만 정작 쉬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아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고 쉬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방가이드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일명 ‘1군 건설현장’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시공자인 건설 현장엔 비교적 휴게 조건이 충족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동구 금남로의 대기업 시공사 건설현장 1층에는 여성 직원 전용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여성 직원은 3명밖에 되지 않지만 5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에어컨, 정수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비교적 현장 체계가 잘 잡혀 가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이 시공사로 나선 건

설 현장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한 현장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사비 2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는 휴게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음주단속 피하려다...안타까운 사망사고

나주서 검문 피해 도주 50대, 함평 마을 표지석 들이받고 숨져 음주운전 도주차량, 순찰차 충돌...경찰관·운전자 등 3명 부상

전남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들의 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 31일 함평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께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A(58)씨가 몰던 SUV차량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차량에서 튕겨나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바로 숨졌으며 SUV도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 전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주에서 A씨의 차량을 세워 단속을 하려 했지만, A씨는 방향을 돌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했으며, 검문 지점으로 4km 떨어진 함평군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전날 밤 9시 20분께 나주시에서는 B(68)씨가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B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3여km를 달아나다 나주시 성북동에서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B씨, 동승자 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이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의 법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 1-2부(부장판사 조영범)는 지난 31일 한국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의 현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

래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없어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다”면서 “한국건설이 낸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법인회생 개시원인이 있지만 기각사유가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8월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 돈 받고 부적격자들 대출...광주은행 직원 고발

업무상 배임·수뢰죄 혐의 등

광주서부경찰, 입건 조사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광주은행 직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은행 대출업무 담당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광주은행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 2022년 8월 11일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38회에 걸쳐 8억여원을 고객 4명에게 대출해주면서 A씨가 1400만원의 금품을

도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0월 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한국건설은 11월 5일 까지 회생계획안을 광주지법 회생파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인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고객들의 소득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내줄 수 없는데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은행은 A씨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금품을 받고 대출해 준 정황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해 업무에서 배제(7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시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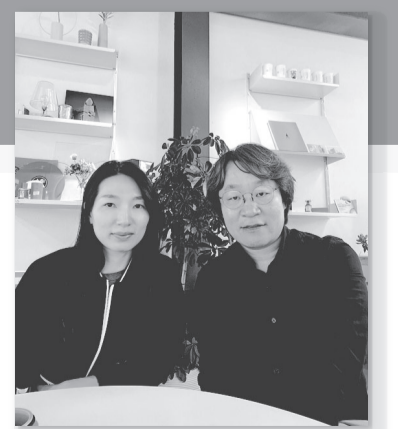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